



□ 座談會/油公 20年을 말한다 □

“우리는 韓國精油産業의 證人”

同窓=오는 4월1일
로 油公의 蔚山정유공
장이 하루 3만 5천배
럴로 가동을 개시한
지 만 20년이 됩니다.
이 공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나라 전
체 석유소비량의 50%
이상을 공급하여 경제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여 왔으며, 또 석유
화학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최초로 나프타분
해공장을 건설 가동하
여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업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油
公 蔚山공장의 역사는 곧 우리
나라 精油産業 20年史의 축소판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듯싶습니
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은 공장 초창기부터 몸을담고 油

- 때 = 1983년 12월 9일
- 곳 = 油公 蔚山精油工場
- 司會 = 金乾洽(대한석유협회·홍보실장)
- 참석자
 - 金日男(油公蔚山정유공장 공장장실·課長)
 - 朴榮潤(油公蔚山정유공장석유정제부·製油1 課長)
 - 金正剛(油公蔚山정유공장실험실·주무)



金日男 課長



朴榮潤 課長



金正剛 主務

公의 발전을 가져온 중추적 역군
들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 보는
데에 감회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油公에 몸을 담게된 동기
랄까 내력부터 얘기해 보시지요.

金日男=사실 20년
전을 돌이켜 생각하자
니 감개가 무량하군
요. 아마 1963년 12월
로 기억이 됩니다. 당
시 해군상사로 鎭海海
군 교육단에서 교관으
로 근무하고 있을때였
지요. 그때 油公 초대
사장은 李成浩 계독이
었는데, 蔚山정유공장
을 건설하면서 여기서
일할 기능직 사원을 모
집하니 다수 응모해 달
라는 요지의 공문이왔
어요. 그때 상사 월급
이 4천9백원이었는데
이공장의 보수는6천원

내지 1만원 가까이 주겠다는거여
요.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또 교육단에서 오래동안 교관생
활을 했으므로 기계라면 어느 정
도 자신이 있어 응모했지요. 그

때 해군에서 응모한 사람은 저말고도 수백명은 되었어요. 시험과목은 간단한 英語와 기능테스트로 합격, 불합격을 그 자리에서 판정하더군요. 다행히 저는 1차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군출신 합격자는 20여명 되었으니까 그 경쟁율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해 12월 16일 처음 입사하니 나에게 중장비운전 교관을 맡기더군요.

利榮潤 = 저도 金과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油公에 들어왔어요. 시험은 金과장과 같이 63년 12월에 봤는데 발령은 64년 1월에 받았지요. 처음에 製油課에 배치됩니다.

油公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정유공장을 건설한 美 Flour社에서 배관반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공장에서 공개채용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 배관공이 부족하던 때라 Flour社에서는 용접사를 자체 교육시켜 합격하면 현장에 배치했고, 또 배관공은 忠州비로나 화력발전소 요원으로 충당하여 이들을 리더로 하여 현지 조달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때는 배관도면의 부호만 볼 줄 알면 상당한 기술자로 대접을 받았으니까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의 얘기지요.

시험 때 시험관이 도면을 내놓고 어느 부분에 엘보가 몇개 들어가느냐고 묻더군요. 부호를 볼 줄 아니까 제대로 대답했지요. 합격이라고 하더군요.

金正剛 = 저는 두분보다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1964년 7월로 기억되지만, 그 때 저는 상업학교 재학중 論山훈련소에서 훈

련을 받고 있는데 그때까지 美軍에서 유지관리하던 유류저장보급소를 한국군이 인수하면서 陸本에서 직접 사병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차출하는 데 제가 끼이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美軍에서 관리하던 유류보급창인 仁川 POL에 배치되었는데, 仁川美병참석유학교 분교에서 Petroleum Analysis를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8개월간 유류 시험에 관한 교육을 마치고 미군부대 실험병으로 배속을 받았읍니다.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자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복학이나 아니면 취직이나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저를 잘 봤던지 64년 3월 제대할 때 표창을 주더군요.

결국 제가 정유공장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軍에서의 제 경력이 크게 작용한 셈입니다.

제대 후 저는 취직하기로 마을을 먹고 몇군데 자기소개서를 띄워 보았습니다. 당시 油公의 실험과장이었던 기포드에게 이력서를 보냈더니 면담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합격이 되었어요. 1964년 6월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同窓 = 세 분은 각기 그 출신과 油公입사동기나 내력은 다르지만 결국 蔚山정유공장 초창기부터 일해온 멤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시설도 미비하고 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金日男 =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시설이라고는 가건물 몇채와 제 1 공정지역에 일부와 동력

시설 그리고 탱크 몇基가 전부였고, 황량한 허허벌판뿐이었읍니다.

이와같이 적은 시설 이었지만, 정유산업이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이라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해군에서 10여년간 중장비를 다루었는데도 정제장비, 탭, 炬, 펌프, 압축기, 열교환기를 대하니 잘 모르겠더군요. 숙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또 교대근무제도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읍니다. 당시 蔚山의 인구가 4~5만 정도였으나 주택이 크게 모자라 셋집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고, 아내는 밤근무하는 남편이 낮에 잠을 자도록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성대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수익이 없어 물자공급도 충분치 못했고, 가족장갑도 떨어지면 자기가 꿰매 썼읍니다. 고무장갑은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쓰기도 했구요. 기술도 익숙치 못하고 장갑이 나쁘니까 때로는 스팀보온장치를 만지다가 손을 데기가 일쑤였지요.

利榮潤 = 숙련되면 5~7년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처음에는 기술미숙으로 여러가지 옷지 못할 일도 많았습니다. 한번은 炬를 Dry out하는데 잘못 조작하여 炬가 폭발직전까지 갔던 위험한 일도 있었지요. 이 炬는 원래 가스를 쓰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원유를 썼으니 내부 온도가 섭씨 800도까지 올라가 야단법석이 났었지요.(웃음).

金日男 = 걸프가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7조3교대로하다가 나중에는 4조3교대로 바뀌

었지요. 美國人과 지금의 임원들이 그 당시엔 교대반장으로 미국인이 지시하면 임원들이 통역을 하고 이에 따라 운전하는 식이었으니까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朴鍾律 부사장님도 그 때엔 공장에서 저희와 같이 일하면서 교대반장 일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1965년 걸프 기술진이 철수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체기술로 공장을 운전해 나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야근 공장장 역할을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겁이 납니다.

利榮潤 = 그 동안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우리의 운전 기술은 크게 발전했어요. 오일쇼크 이전까지만해도 炉의 연료비는 따지지 않았는데 그후 원유가격이 폭등하면서 Energy Conservation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炉의 연료절감방안이 강구되고 연료절약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해도 UOP에서 만든 Process Spec을 운전지침으로 사용했는데 우리는 이를 응용하여 환류조정등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UOP에서 디자인한 것보다 더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金正剛 = 저는 油公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 계속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美國人 기술자 밑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고 허드렛 일이나 시켜요. 그래서 우리도 질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조선이 들어오면 試料채취하

러 나가는데 내가 처음 유조선을 본 것은 미스 코리아였어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배였는데 배위에 올라 가니 마치 서울운동장 같은데 참으로 어마어마하더군요.

그 때는 조금이라도 더 배우겠다는 一念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유조선에서 검은 원유를 시료용으로 채취하다가 자기 얼굴에 검댕이 칠을 한 줄은 모르고, 동료 얼굴에 묻은 검은 기름을 보고 웃으니까 그 동료는 내 얼굴을 가리키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지요.

우리의 정제기술이 국내외에 인정되면서부터 우리의 석유류제품을 美8軍에 군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기술이 과시되기 시작한 것은 美國방성의 DFSC가 美軍에 군납하는 해외 정유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정확도시험에서 100% 합격하고부터인데 이것이 우리가 美軍에 군납하는데 큰 무기가 되었어요.

金回男 = 그 동안 제일 큰 어려움이라면 노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해야 했던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저희 공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증설 확장을 거듭하다 보니 종업원들은 제 때에 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朴과장과 저는 여태까지 일요일 공휴일에 제대로 놀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또 지난 69년인가 京釜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아무리 생산해도 아스팔트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에서는 빨리 아스팔트를 더 많이 생산하라는 지시는 불같고, 그래서 아스팔트를 제 때에 공급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야

간작업을 하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공장이 이만큼 발전한 것을 보면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이 모두 보람 있게 느껴집니다.

同 =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초창기의 어려웠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바꾸어 이 공장의 교육훈련제도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지요. 특히 이 공장의 기술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돼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민 훈련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金回男 = 사실 저희 공장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라면 우선 교육훈련제도를 들 수 있겠읍니다. 그 동안 계속돼온 확장과 석유화학설비의 건설, 그리고 다른 精油社들이 생기면서 우리 공장이 양성해 놓은 기술인력을 스카우트해 가는 바람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또 우리 공장의 교육훈련제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로 현재 본사의 趙圭鄉 인사·총무담당상무님을 들어야겠읍니다.

아마 1973년으로 기억되지만, 그 분이 美國의 정유산업을 돌아보고 귀국하면서 API(美國石油協會) 운전교범과 日精社의 운전교범을 가져와 번역을 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이 운전교범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했는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은 油公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직업훈련생을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적이 우수한 자는 우리 공장에서

정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외부의 인사청탁은 철저히 배제하고 성적순으로 뽑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수준은 자랑할만 하지요.

同窓 = 얼마전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사우디 아라비아의 페트로민 훈련생들의 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金田男 = 지난 9월에 1차로 44명이 수료했고, 다시 11월 중순에 29명, 그리고 12월 22일에 34명 등 모두 107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저희들이 産油國의 기능요원들을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교육훈련교범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그 당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나 모든 체계가 갖추어지고 기술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으며, 시청각기등 각종 교육기자재를 갖추고 있었던 점이 큰 힘이 되었지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어요. 우선 1981년 6월부터 교관교육이 시작되어 延世大 외국어학당에서 9개월간 아랍어와 영어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같은 해 9월에 페트로민훈련생들이 입소하여 延世大 외국어학당에서 5개월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京畿工專에서 1개월간 실습교육도 실시한 후 1982년 4월부터 蔚山정유공장에서 본격적인 운전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서로 언어소통이 자유스럽지 못했는데다가 피교육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9월이 되어 날씨가 선선해져서 추울세라 난방과 피부에 신경을 썼는데 이들은 오히려 런닝셔츠 바람으로 다니면서 뭐가 추우냐는 거예요. 또 교육질서를 위해 우리 式으로 줄을 서라고 하니까 절대로 줄을 안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줄을 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다혈질의 기질들이라 다루는데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교관들 사이엔 「죽을 지경」이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金正剛 = 이들에게는 운전교육 외에도 실험교육도 실시했는데, 실험실에서 열심히 설명해도 언어소통문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도대체가 듣는둥 마는둥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짝퉁은 질문을 하여 교관을 골려 주기도 하구요.

金田男 = 이들은 다소 짝퉁은 데가 있지만, 또 순진한 면도 있어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험을 통한 교육을 하니까, 처음에는 시험이 너무 많다고 불평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시험일이 임박하니까 3~4 일씩 밤을 새워가며 시험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룻밤만 세워도 녹초가 되는데 저들은 3~4 일씩 밤을 꼬박 새우고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 체력은 정말 놀랍더군요.

同窓 = 油公이 외국으로부터 기능공을 위탁받아 교육 훈련을

시키게 됐다는 것은 곧 油公의 기술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油公의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朴榮潤 =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의 기술수준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존장비운전은 이미 마스터했고 이제는 품질관리, 연료절감문제만 남았습니다. 모든 計器도 컴퓨터化하는 단계이고요.

또 과거에는 단순히 Spec에 따라 운전을 해 왔으나, 이제는 그 Spec을 바꿔가면서 운전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조건을 개선하여 같은 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1971년에는 Gulf와 합작으로 건설한 오키나와 정유공장에서 시운전요원 23명이 우리 공장에 와서 운전교육을 받고 돌아갔고, 1972년에는 이 공장의 시운전을 돕기 위해 金과장등 5명이 오키나와에 6개월간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노우하우개발등 기술현대화를 위해 지난 11월 중순에 연구개발실험실이 신설되었고, 선발전 연구팀이 프랑스에 유학하기 위해 현재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지요.

앞으로 이 실험실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제품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2단계로 공정개선까지 발전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실험

실이 독립된 기구로 확대되면 아마 KAIST의 축소판 같은 연구기구가 될 것입니다.

同(油公) = 油公은 합작선이었던 Gulf가 지난 1980년 8월 철수한 후,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같은 해 12월 鮮京이 인수하여 순수한 국내자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영화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었습니까?

同(油公) = 저도 처음에는 민영화된다고 해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쫓겨나는구나 하고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鮮京은 무척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과감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어요. Gulf 시대에는 전혀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는

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시설면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직원들의 복지후생에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소속감과 사기는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 밖에 없지요. 저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 공장을 내 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

□ 石油短信 □

産油国들, 「석유小売網」구축

油価하락따른 收入감소 보전위해

OPEC(석유수출기구) 회원국들이 油価下落에 따른 석유收入감소를 補填하기 위해 精油시설 및 정유제품소매업 부문에서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의 선두주자적인 쿠웨이트는 최근 걸프오일산의 이탈리아내 정유시설과 정유제품 판매망을 인수하기로 걸프오일측과 합의했다.

이로써 쿠웨이트는 西유럽에 3천개에 달하는 주유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OPEC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유럽에 대규모 석유소매망을 갖게되었다.

또 다른 OPEC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1년전 西獨메바산와 합작으로 西獨에 정유공장을 세웠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유럽과 美国에서 정유시설 및 정유제품 판매망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쿠웨이트는 1981년 美캘리포니아 州

소제의 다국적 석유탐사 및 시추회사인 샌터 인터내셔널社를 인수함으로써 美国에 중요한 거점을 확보했다.

많은 産油国들이 이처럼 정유시설과 정유제품판매망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原油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내생산 정유제품의 해외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걸프오일산는 지난해 5월에도 베네룩스 및 스칸디나비아諸國에서의 정유제품판매망을 쿠웨이트에 매각했다.

걸프오일산와 스탠더드오일산 등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은 손해만 보는 유럽시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産油国들의 유럽시장진출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